

##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작품제작지원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작품제작지원단
- 회의일시 : 2025년 4월 18일(금)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1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형섭, 노은영, 박장렬, 유연경, 홍은주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작품제작지원단 사업은 예술의 성장과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2024년 광역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중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규 사업입니다. 작품제작지원단은 공연예술 분야 30여개 단체를 선정하여 작품 개발 지원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단체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운영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 간의 협력 구조를 견고히 하고,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모든 단체는 공연예술 현장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예술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기획력과 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단체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각 단체가 보유한 고유한 강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에서 현장성 높은 고민과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종 선정된 단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 역량과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과 공연예술 단체들과의 실질적 협업 이력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제작·홍보·모니터링·성과 공유·후속연계에 이르는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관리형 사업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기획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인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품제작지원단의 역할은 단순한 중간지원에 따른 행정과 운영이 아닌, 예술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기반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이므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력과 조정 능력, 그리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예술단체의 필요와 현장의 흐름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참여 단체들의 예술적 수준과 역량이 상이한 만큼, 신진 예술가부터 중견 예술단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와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 합니다.

향후 작품제작지원단 운영사업이 단순한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의 내재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기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단체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기초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유연하면서도 정교한 운영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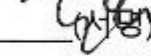
끝으로,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득이하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연예술이 더욱 넓고 깊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지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위원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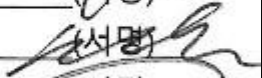
김형섭



노은영



박장렬



유연경



홍은주

